

| 2025년 8월호

현안분석 Brief

2025. 8.

| 목차 |

1. 청년 지원 정책 동향과 구미시 정책 현황
2. [특별호] 구미기업 인터뷰



CONTENTS

 청년 지원 정책 동향과 구미시 정책 현황 4p

 [특별호] 구미기업 인터뷰 18p



01

청년 지원 정책 동향과 구미시 정책 현황



내용문의 : 조수현 선임연구원(chod7210@geri.re.kr/054-479-2264)

청년 지원 정책 동향과 구미시 정책 현황

◆ 2025년 중앙정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방향 검토

-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시행하여 청년을 위한 전 분야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청년 고용·자산 지원 체감도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 시행

◆ 구미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 검토

- 구미시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에 주력
- 일자리·문화·주거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01 >> 청년정책 개요

📖 청년정책 개요

- ✓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년) 수립('20.12)
 - *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 (35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의 장
- ✓ 수립 경과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12.23)
 -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
- ✓ 주요내용
 -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 구현을 위해 '청년정책 추진 계획' 마련('24.3)
 - ('24 청년정책 추진 평가) 청년들의 삶에 밀접한 ▲ 일자리 ▲ 자산 ▲ 생활 등 핵심 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 강화

- ('25 청년정책 추진 방향) 청년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자산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비 교통비 등 **고비용 생활비**를 낮추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 개선

✔ '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총괄) 35개 중앙행정기관 총 339개 과제, 약 28조원 투입

*참고1에 분야별, 기관별 시행 과제수와 청년예산 수록

분야	기본계획 수정(~'25)	'25년 시행계획
일자리	·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 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 확대 · 창업중심대학 추가지정, 청년창업 소과정 패키지 지원
주거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 ·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완화	·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 ·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장기·저리 대출
교육	·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접근성 강화 · 지자체 산·학·연 협업체계 강화	·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 · 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 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
생활·복지·문화	·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1조원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축소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 장병 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 ·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 · 청년 정신·신체 건강 증진 지원
참여·권리	·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사회 기반 조성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 · 청년 해외인턴 확대 등

02 >> 국외 청년 지원 정책 동향

📖 주요국 청년 지원 정책

- ✅ (주요 정책) 대다수 국가가 일자리 역량(교육, 훈련 등)을 중심에 두고, 주거와 취약청년 표적 지원 결합
- ✅ (일자리)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대표적 성공사례는 EU의 '강화된 청년 보장제'* 와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으로 꼽힘
- ✅ (한국 도입) 한국의 '쉬었음'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국외의 청년 지원 정책 성공사례 참고, 도입 방안 검토

국가	지원 대상	지원 분야	프로그램 명	세부내용
EU	만 30세 미만	일자리	강화된 청년보장제*	- 실직·졸업 후 4개월 내 '일자리·교육·훈련·인턴' 중 1개를 국가 책임으로 제공하는 정책
	학생	교육·훈련	Erasmus+	- 해외에서 공부·훈련·실무·자원봉사의 기회 제공
독일	-	일자리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학교와 기업의 현장훈련을 결합한 국가-산업 공동훈련 모델로, 쉬운 교육-고용 전환과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
핀란드	만 30세미만	보편	청년 원스톱 안내센터	- 전국 약 70개 센터에서 청년에게 진로·학업·주거·복지 상담을 무료 통합제공
	-	주거·취약	주거우선 모델	- 노숙인에게 먼저 주거를 제공한 후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일본	15~49세	취약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취업 곤란 청년 대상 취업에 필요한 능력 향상 및 일경험 제공을 통해 직업적 자립을 도움
	고교 졸업 후 2년 이내 진학자	보편	고등교육 수확자원 신제도	- 등록금·입학금 감면·면제와 JASSO 급여형 장학으로 저소득층의 대학·전문학교 진학과 지속지원

* 강화된 청년보장제(Reinforced Youth Guarantee)

** 이원적 직업훈련 제도 (Duales Ausbildungssystem)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사포스테)

03 >> 국내 청년 지원 정책 동향

📖 2025 국내 청년 지원 정책 요약



*자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국무조정실)

📖 일자리 분야

- ✓ (목적)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일자리 확대 역량 강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촉진,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훈련 지원, 일하는 청년 지원 강화 등의 정책 마련
 - (창업활동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진출 기회 강화

고용노동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 (목적)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활성화 사업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 유형 I : 취업애로청년의 고용 촉진, 유형 II : 제조업과 비일자리 업종의 인력 수급 지원
- ✓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청년일경험지원) ('23년~)
 - (목적) 수시 경력채용 확산에 대응하여 미취업 청년의 직무경험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유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기업탐방형으로 운영
-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21년~)
 - (목적)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자를 위해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산업
 - (지원내용)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KT·삼성 등)에서 직무능력 향상,수강료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11년~)

- (목적)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 창업공간, 교육, 기술, 투자 지원 등 패키지 지원

☞ 생활 복지 문화 분야

✓ (목적)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자산형성지원제도 간 연계 및 지원 확대,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청년 취약계층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 은둔청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25년)

-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 수령
- ('25년 개선사항)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대상 확대, 온라인 해지 신청접수 및 만기지원금 지급, 자산 사례관리 금융교육 제공 등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19년~)

- (목적)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 (사업내용) 보호종료 5년 후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및 생활, 주거, 취업, 교육, 건강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참여 권리 분야

✓ (목적) 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국무조정실

✓ 온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20년~)

- (목적) 청년정책 공간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청년층의 정책 접근성 강화
- (주요 내용) 부처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 연계한 온라인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행정안전부

✓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18년~)

- (목적)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의 지역 탐색 지원을 통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지역에는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청년들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및 △주민교류 행사 등 운영

구분	주요내용
지역 살아보기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 실험	취·창업 교육, 지역자원(특산물,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공간으로 활용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 주거 분야

✓ (목적) 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주택(뉴:홈) 공급 확대, 우수입지 공적 임대 공급
-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2~'27년 한시)

- (목적)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지원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까지 최대 24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 ('22년~)

- (목적)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유형) 나눔형(분양, 25만호), 선택형(6년거주, 10만호), 일반형(기존 공공분양주택, 15만호)로 구성

🎓 교육 분야

✓ (목적)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

- (청년 미래역량 강화) 국가 인재양성 기반 강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확대
-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육성 ('24~'27년)

- (목적) 이공계 인재를 주요 대학에 파견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험 제공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지원내용) ①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학업장려 목적의 생활비성 장학금)과 ②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 국가장학금 ('12년~)

- (목적)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지원내용) 대학생 가구의 경제 수준에 따라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 I 유형(학생직접 지원형) 및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차등 지원

04 >> 구미시 청년 지원 정책 동향

1 2025 구미시 청년정책 비전 및 정책목표

- ✓ (청년 인구 정책) 구미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 중심의 인구 정책 추진
- ✓ (정주 여건 개선) 청년참여 공간 조성 및 지원사업 리뉴얼을 통해 실질적 정주여건 개선 도모

구미시 청년정책 구조 요약	
비전	미래를 키우는 교육·돌봄도시 구미
정책목표	- 청년이 정착하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미래형 인구정책 추진 - 구미 재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등
추진전략 청년관련과제맵	[다시 담는 새희망 41만 구미시대] - 구미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수립 - 청년거점공간 구축 및 청년 참여 플랫폼 확산 - 청년지원사업 리뉴얼 및 지역 청년 지원사업 추진

* 자료: 구미시 2025년 주요업무계획 기반 저자 각색

2 구미시 청년정책 주요 분야별 추진내용

📄 일자리·창업 지원

- ✓ (필요성) 관내 39세 이하 청년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가 청년인구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구직의사 고취와 경제활동 참여 유도 필요
- ✓ (추진방향) 청년, 기업, 지자체가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히, 청년 여성 특화 사업 추진으로 여성 인구 유출 감소 노력*

* 청년 여성 인구 유출 가장 두드러짐 ('24 구미시 타 지역간 순이동 인구 736명 중 20~30대 여성 625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일자리	구미형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미래전략산업 대응 지역청년 기술인재 역량개발 및 채용지원	(※)비트텍 외 8개사, 9명 지원중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원	
취업	구미 취업준비 프리패스	- 면접정장대여비, 취업사진 촬영비, 서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24 12월말 기준 412건 지급 (20백만원) 자격증 324건으로 최다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 지역기업 헤드헌팅 지원사업 -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24 청년구직자 230명 '24 청년구인기업 10개사 연계
창업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 구미시 청년창업 LAB 인프라 활용 - 창업특화교육, 장비활용기초 교육 - 여성 창업 특화교육 개설	'24년 11월말 기준 교육 222회, 836명 수료 특화교육 10명 전원 창업성공

* 자료: 구미시 2025년 주요업무계획 기반 저자 각색

- ✔ (청년여성 맞춤형 취업 교육) 고숙련 또는 고부가가치직종 분야 및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수요조사 시 희망도가 높은 직무로 취·창업 지원
- (주요내용) 네일아트 전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업 맞춤형 양성과정
- * '25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주거·생활 지원

- ✔ (필요성) 청년 1인 가구 및 전 월세 거주 비중 증가,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지역 청년의 정착과 자립에 어려움 존재
- ✔ (추진방향) 다양한 주거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정착 유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원룸공실해소 청년 근로자 지역정착사업	관내 기업 근무 청년에게 공실 원룸 저렴하게 임대 및 지원금 지급	사업시행 '25.2~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2차)	구미시 거주 미혼 청년 1인가구에게 월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지원	'24 12월 기준 80백만원, 237명 지급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에 기여	사업시행 '25.4~

역량개발·문화참여

- ✓ (필요성) 지역 청년의 취 창업 역량 강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 (추진방향)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함

사업명	사업내용
청년 테마특강 운영	청년 대상 힐링·취미·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테마 특강 운영
미래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 대전환 선도	[청년 농업 창업 역량강화 및 정착 인프라 지원] - 훈련센터·커뮤니티 농장 등 통해 농업 전 주기 창업교육 및 정주 지원
구미국제조각페스티벌	[도시형 공공예술 확산 및 청년 문화향유 확대] 조각·미디어아트 설치, 시민참여형 거리 갤러리 조성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청년 문화자원 확충 및 창작 공간 조성] 구미역·전통시장 등 유휴공간에 문화예술체험 및 미디어아트 운영 예정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지원 체계 강화, 안정적 정주 기반 청년 참여 확산을 통해 미래 세대가 머무는 구미 구현 필요

참고1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 개요

☞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13개), 예산 기준 주거 분야(11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4년	'25년	(비중, %)
I. 일자리	113	58,854	65,261	23.1
II. 주 거	27	115,911	110,699	39.2
III. 교 육	112	75,378	82,253	29.1
IV. 생활·복지·문화	41	19,083	22,431	7.9
V. 참여·권리	46	1,233	1,635	0.6
합 계	339개	27조 459억원	28조 2,279억원	100%

☞ (기관별) 청년정책 과제(339개)와 예산(2025년 28.2조원) 현황 (교육 고용 문화 분야 중점)

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 (개)					청년예산(억원)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24년	'25년
문화체육관광부	39	10		12	16	1	1,629	1,500
국토교통부	38	7	22	6	1	2	115,118	110,250
교육부	38	2	2	28	1	5	64,236	69,659
고용노동부	31	25		5		1	43,986	51,9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	7		24			3,060	3,955
중소벤처기업부	24	18		5		1	6,724	6,570
농림축산식품부	15	7	1	6	1		10,794	10,030
국무조정실	13	1				12	740	710
보건복지부	8				8		3,015	2,744
여성가족부	8	3		1	4		372	360
금융위원회	7	1	2		4		3,832	3,777
산업통상자원부	7	3		4			2,241	2,639
외교부	7					7	793	1,252
환경부	7	3		2		2	476	398
산림청	6	3		2		1	70	79
식품의약품안전처	6			5	1		102	64
해양수산부	5	2		3			52	60
인사혁신처	5	4				1	2	28
병무청	4	2		1	1		1,646	2,098
행정안전부	4	1		1		2	830	271
국가보훈부	4	2				2	68	133
농촌진흥청	4	2		1		1	40	37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2
국방부	3	1		1	1		10,465	13,536
특허청	3	1		2			99	105
국가유산청	3	2				1	35	41
법무부	3	1		2			1	14
기획재정부	3	1			2		0	0
재외동포청	2					2	7	5
통일부	2	1				1	7	5
방위사업청	1	1					16	16
조달청	1	1					0	0
방송통신위원회	1			1			0	0
공정거래위원회	1					1	0	0
통계청	1					1	0	0
합계	339	113	27	112	41	46	270,459	282,279

참고2

2025 부처별 청년 지원사업 세부내용

연번	기관명	사업명	세부 내용
1	고용 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60만원 인건비 지원 18개월 이상 재직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지급
2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 인턴형: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 프로젝트형: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ESG지원형: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 확대 운영에 지원 - 기업탐방형: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 탐구,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미래 진로 설정
3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 맞춤형 프로 그램 운영.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50~250만원) 및 이수·구직활동·취/창업 인센티브(최대 100만원) 지급
4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	전국 2개교 내외 선정, 일반형(재적생 1천명 ↑) 정부 2억원·대학·지자체 1억원 매칭, 거점형(재적생 7천명 ↑) 정부 4억원·대학·지자체 3억원 매칭
5	중소기업 벤처부	청년창업 사관학교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에 최대 1억원(총 사업비 70% 이내) 사업화 자금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판로 및 마케팅비 등)
6	국토 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세~39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지원. 월세거주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매월 분할 지원
7		청년매입 임대주택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이거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동안 거주 가능
8	산업통상 자원부	한미 첨단분야 청년 교류 지원사업	이공계 청년에게 미국 주요 대학 파견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 및 경험 습득을 위한 지원사업. 제3기 장학생 300명 내외로 한 학기 파견 200명 두학기 이상 파견 100명으로 각 장학금 12,060천원과 24,120천원 지급과 기업현장학습 등 연계 프로그램 학습 지원
9	보건 복지부	청년저축 내일계좌	만 19세~34세의 중위소득 50~100%의 일하는 청년이 월 50만~250만원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10만원 정부 지원으로 3년 뒤 총 720만원+이자 수령 가능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10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 19~34세 청년,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돌봄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11	행정 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전국 12개소 선정, 청년단체 기업(대표 청년, 참여인력 중 청년 50% ↑) 대상, 단체별 3년간 총 6억원 지원(연 2억원, 성과평가에 따라 변경 취소 가능)

참고문헌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관계부처 합동
3. 핀란드의 사회 배제 청년을 위한 지원, 국제사회보자리뷰, 2023.12, 27권 29-37(9pages)
4. Youth Wiki national description - Youth policies in Finland 2021
5. 핀란드의 노숙인지원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9, vol., no.24, pp. 127-158 (32pages)
6. 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 가을호 Vol.30 pp.71 ~ 85
7. 일본의 청년 지원 정책: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8.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 및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20.06.22., pp.9-21
9. 2025년 주요업무계획, 구미시

특별호

구미기업 인터뷰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관세의 급격한 변동, 주요국의 수출 규제 강화, 공급망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 활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미시의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우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과를 거둔 2개 기업을 소개한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전략적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제품 경쟁력 제고, 맞춤형 시장 공략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향후 지역 수출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문의 : 박수현 선임연구원(anna2224@geri.re.kr/ 054-479-2263)

[전기차의 세계 일류를 꿈꾸다]

형제파트너

1. 회사 소개

형제파트너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형제파트너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사를 둔 전동차 전문기업으로, 2015년 농업용 전기 자동차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저속 전기차(LSEV)와 다목적 전동 운반차를 개발 및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국산 부품을 활용해서 각 수요처의 요청 사항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군부대, 발전소, 캠퍼스 등 다양한 분야에 운반하거나 시설 점검용 차량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형제파트너의 핵심 사업 분야와 주력 제품은 무엇인가요?

(주)형제파트너의 핵심 사업 분야는 농업·산업·공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현재 AGREV 시리즈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AGREV 시리즈는 실내외 혼합 주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 운반차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AGREV 시리즈를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해서 공공 수요처를 중심으로 공급하여 왔지만, 향후에는 개인 고객 거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농업기계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농업용) 전동 운반차



수요기반 맞춤 제작



고용량 적재용 전동 운반차

구미시에 본사를 두게 된 계기와 지역 내에서의 기업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시는 경북 내 최대 규모의 전자·부품 산업 집적지이자, 전기차·이차전지·첨단소재 등 신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핵심 산업도시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구미시의 산업 인프라와 연결되어 저희 (주)형제파트너가 추진하는 제품 개발과 양산 전 과정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관내 기업들과 교류를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시장변화 대응

현재 소속 산업(업종)의 주요 트렌드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주)형제파트너의 주력 산업은 저속 전기차 분야와 농업용 기계 분야입니다. 이 두 분야는 최근 친환경 전환과 함께, AI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패러다임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지능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고, 농기계·운반차량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작업 최적화, 원격 제어 같은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와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 느껴져, 저희 역시도 차량 기술에 AI 기반 제어 시스템을 접목하는 기술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귀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변곡점)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주)형제파트너는 창립 13년 차에 접어든 기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국산 기술 기반의 저속 전기 운반차와 농업용 전동차 플랫폼을 개발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가 가장 큰 변곡점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크고작게 발생하였던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저희와 같은 소형 전기차 제조사들도 기술 안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요구받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EV 보조 규제와 세제 혜택 철회 정책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어, 지금 준비중인 수출 전략과 제품 기획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지가 걱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 (주)형제파트너는 차량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과 실용성 중심의 기술 고도화, 해외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최근 시장 환경 변화(수출 경쟁, 규제·정책, 기술변화 등)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하여, 최근의 전기차 화재 관련 사고나 각국의 배터리 안전 규제 강화 같은 이슈들은 기술적 책임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생긴 글로벌 무역 이슈들은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수요처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지에서는 아직도 중국산 전기카트를 많이 쓰고 있지만, 높은 관세와 제품 신뢰도 문제 때문에 FTA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산 제품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성공적으로 체결한 미국 수출 계약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저희와 미국 수요처를 연결해 준 일본의 무역 기업 '가네마쯔(Kanematsu)'도, 중국산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찾고 있는 글로벌 바이어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를 파트너로 선택한 시장 배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윗 질문 연속)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주)형제파트너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위기로 대응하지 않고, 기술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는 기회로 삼고자합니다. 우선 실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반적으로 커진 소비자의 우려를 의식하여 차량 설계 단계부터 배터리 안정성, 전장 모듈과 구조 안전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전략으로는 FTA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대체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맞춤형 수출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부분과 함께,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과 같이 미래 기술을 접목한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높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향후 사업 및 해외 진출 계획

작년('24년)에 형제파트너의 대표 모델인 AGREV21-CA 차량이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대구신문, '25.06.30 게재). 이러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거나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AGREV21-CA 모델이 2024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된 건 저희에게도 의미 있는 이정표였습니다. 사실 해외 진출이라는 건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술 신뢰를 쌓고 시장을 꾸준히 두드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성능과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품의 실제 활용 모습과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고, 국내외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가하면서 현장에서 바이어들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어느 한순간의 결과라기보다는, 차곡차곡 쌓여서 연결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맞물리면서 “한국에도 믿을 만한 소형 전기 운반차 제조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이번 미국 수출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출 과정에서 지역(구미시/경북도 등) 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개발 자금, 인력, 전문 지식과 같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맞닥



리게 됩니다. 저희 기업도 유관 기관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미시와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를 비롯해서, 제품 홍보, 국내외 전시 참가, 기업 경영 컨설팅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덕분에 저희가 구상했던 제품 개발 계획이 현실적인 실행력과 추진력을 얻어 해외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배경과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이번 미국 수출은 저희 (주)형제파트너에게는 첫 해외 진출 경험이었습니다. 수출 이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제품 협상, 관세 대응, 인증 절차처럼 모든 과정이 낯설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걸 배우고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점차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 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업과 제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도 여전히 후속 모델에 대한 개발 협의와 수요처 맞춤형 스펙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제품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사양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것을 협상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수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 성과

최근 R&D 투자와 성과, 그리고 주요 기술 혁신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자체 개발한 4륜구동 전동 플랫폼이 농기계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증 완료 시 국내 판로 확대와 함께 미국 수출 레퍼런스로도 활용할 계획이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맞춤형 사양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투자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연구/투자 개발 과

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발 자금 확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형제파트너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업 추진이나 제품(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앞으로 도입 및 개발하고자하는 신기술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혁신/연구 과제는 무엇입니까?

저희 기업의 강점은 차량 설계와 플랫폼 제작 같은 하드웨어(H/W)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S/W)와 펌웨어(F/W)영역은 아직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들을 보강한다면, 자율주행·스마트 제어 등 다방면에 걸쳐 차량 개발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정책/제도 지원

최근 활용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또는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차량 개발, 제품 홍보, 규제 컨설팅, 사내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지원은 기업 운영의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충 지원이었습니다. 이번 자금은 제조 설비 확장과 생산 라인 개선에 직접 투입해서 제품 품질의 안정화와 생산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현재는 대량 생산과 안정적인 양산 체계가 부족하지만, 시설 증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문에도 대응 가능한 유연한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어 국내외 수요 증가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기업/산업 육성(지원정책, 규제완화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책이나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사업설명회나 안내 자료가 제공되더라도, 제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책 당국(구미시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포함)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내에도 아직 성장중인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구미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와 실질적 R&D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 주신다면 저희와 같은 중소 제조기업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미래 전망 및 기타

형제파트너의 단기(1~2년) 및 중장기(5년~) 성장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형제파트너는 단기적으로는 제품 인증을 기반으로 국내외 판로를 정비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북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전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전국 어디서나 형제파트너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그 시작으로 올해 9월 구미역사 앞에 첫 전시장을 개관합니다. 이 전시장은 고객이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다 가까운 곳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점차 넓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수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 각 권역에서도 ‘형제파트너’라는 이름을 알리고 더 많은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업 성장을 통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해당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역(구미시/경북도 등)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도 제품과 기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미시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홍보 기회가 생긴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에서 개최하는 라면 축제나 산업 박람회 같은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형제파트너’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무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은 현재는 규모는 작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전·후방 연계 산업이 다양해 앞으로 함께 성장할 기회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형제파트너’라는 이름과 제품을 알리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 힘을 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장비 전문회사로의 도약]

지아이에스

1. 회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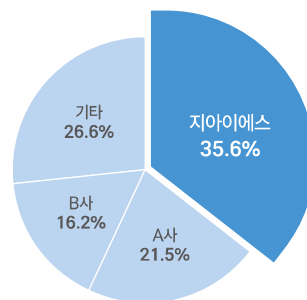
지아이에스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아이에스는 40여년간 구미시에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에 주력해 온 기업입니다. 1988년 설립된 구일 엔지니어링에 근간을 두고 시작한만큼 지아이에스는 구일솔루션 (GooilSolution)의 영어약자를 본따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구일은 '구'미에서 '일'류가 되기를 바라는 이전 창업자님의 의지가 들어가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에서 1등 하는 기업'이라는 포부로 의미를 확장하며 도전을 이어왔고, 그만큼 열심히 성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M&A를 통해 네온테크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본사는 구미시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아이에스의 핵심 사업 분야와 주력 제품은 무엇인가요?

지아이에스는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사로 출발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와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브라운관 시절에 LG 기업이 골드스타 즉 '금성사'의 사칭을 사용할 때부터 LG 디스플레이와 관계를 이어온 만큼, 현재 높은 기술 신뢰도와 시장 점유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여, 방산·2차전지 장비·물류·공정 자동화·로봇 분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X-RAY 검사기와 CT 검사기 등 의료기기 제품을,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자동화 제조 로봇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모회사 네온테크가 보유한 튀김 조리기 기술을 기반으로, 패티 자동 조리 로봇 장비를 개발해 유명 프랜차이즈에 납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점유율 (LG디스플레이 공장 내 '23년말 셋업 설비 기준)

대표 생산품 소개 - 디스플레이 공정 자동화 및 검사 장비 토털 솔루션 공급 시스템

			
Optical System	Aging System	In&Off-line Inspection	Pattern Generator

2. 시장변화 대응

현재 소속 산업(업종)의 주요 트렌드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산업의 트렌드는 기술 고도화와 자동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핵심 변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해외 생산 비중이 늘면서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 및 설치·유지보수(AS)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접 산업과의 융합 기술 수요가 증가하며 2차 전지, 방산, 푸드테크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비 업종의 대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제작 전 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출이 먼저 발생하지만, 통상적으로 납품 후 최소 6개월~수년 후에야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 자재 구매, 인건비에 지출되는 경비는 각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비 업종 기업들의 공통적이면서도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기업 경영을 전담하다보니, 향후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R&D 인력은 수도권·대기업 선호가 강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 환경 변화(수출 경쟁, 규제·정책, 기술변화 등)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의 시장 환경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해외 생산거점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그리고 기술 변화 속도의 가속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과 같은 장비 산업군은 수주 규모가 크지만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선 시장 변화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비 산업군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 위험도 부담 요소입니다.

(위 질문 연속)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첫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특정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방산·2차 전지·푸드테크 등 신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력 확보를 위해 구미시의 인턴십·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내 기숙사를 건립하여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 고객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의 현지 맞춤형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사업 및 해외 진출 계획

작년('24년)에 지아이에스가 '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의 영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재작년('23년)에는 '5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공 과정에서 특별히 준비했거나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은 저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구미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회사의 성장 과정을 잘 지켜봐 주셨고, 추천을 해주셔서 준비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대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구미시에 위치한 향토기업으로서 그간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부분도 많이 잘 반영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관련해서도 제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제작하다보니 저희 회사 주요 제품들의 납품처가 중국과 베트남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들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해외 수출망 확보를 위해 판로 개척 노력을 하다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지역(구미시/경북도 등) 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구미시청과 교류하며 인턴십 연계, 애로 사항 해결,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미시청에 기업 운영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공유하면,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들을 같이 해주십니다. 최근에 저희 기업이 5

국가산업공단으로 이전하면서, 토지나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발생했던 산불 재난 복구 활동에도 관련 기관을 연계해주셔서 기부 활동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현재 지아이에스는 다양한 사업 영역(방산설비 자동화 시스템, 2차전지 장비, 물류·공정 자동화, 푸드테크 등)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장이나 신시장 진출에서 경험한 실패(혹은 리스크) 사례와,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의 신사업 확장 과정에서 방산과 푸드테크 분야 모두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력해 패티 자동 조리 장비를 개발하던 중 연구과제 예산 축소의 어려움을 겪었고, 방산 분야에서도 업체와의 협업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무산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시장 수요 변화와 정책 예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고, 이후에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자금과 외부 연구개발 과제를 병행해 기술 축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배경과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현재 해외 매출의 상당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의 동남아 공장(베트남·중국) 납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등 신흥 및 선진 시장 동시 공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기존 고객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확대, ▲현지 파트너사 발굴 및 A/S 거점 구축, ▲현지 규제와 인증을 사전에 확보하는 ‘프리마켓 진입’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영업 인력을 보강하고, 현지화된 장비 사양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아이에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량이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는 3가지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품질 신뢰성입니다. 장비 산업에서는 납품 이후 수년간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품질이 곧 기업 신뢰로 이어집니다. 둘째, 서비스 대응 속도입니다. 특히, 해외 설

치·A/S는 현지 대응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현지 거점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장기적 관계 구축입니다. 고객사와 단기 계약이 아닌, 다년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공동 개발·개량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 성과

최근 R&D 투자와 성과, 그리고 주요 기술 혁신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저희 구일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R&D 성과로는 ‘첨단 스마트 복합 센서 모듈 개발 연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25년 10월 말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저희 기업은 산패도 및 Gas 센서 개발과 화재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딥러닝 알고리즘을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Gas 포집부 개선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센서를 개발하여 각종 푸드테크 장비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투자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희 구일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지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기술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R&D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도 별도의 R&D 연구소를 두고 설계·SW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이 숙련된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구미시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여 인턴십 과정을 진행중이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기타 다른 연구기관과 국책 과제에 필요한 연구 개발 인력들을 협업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직원 기숙사를 건립중에 있으며, R&D 연구인력에 대한 우수보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한편, 신규 R&D 사업 지원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신규 R&D 사업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 사업은 대부분 상용화 이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반 리스크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사업 추진이나 제품(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앞으로 도입 및 개발하고자하는 신기술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혁신/연구 과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AI가 전 세계 화두인만큼, 저희 기업도 AI를 활용하여 검사 기술에 딥러닝을 적용하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에 어떻게 필요한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주셔서, 기업 수요에 맞춤형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연구과제 지원사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 정책/제도 지원

기업/산업 육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인력 유입과 더불어 장기 근속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 중소기업 채용 인센티브, ▲기숙사·주거비 지원, ▲지역 대학과의 연계 교육·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R&D 선지원·후정산 제도나 중소기업 전용 자금 제도로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청년 일자리, 환경·안전 등과 관련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기업은 구미 향토기업으로 성장한만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구미시 사회공헌지원센터'와 여러 방안을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 올해 초 경북 북부지역 산불 현장에도 회사차원 및 개별 임직원들이 기부를 진행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와 협력/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는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와 더불어 금오공대 가족기업으로서 꾸준히 청년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업무 위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미래 전망 및 기타

지아이에스의 단기(1~2년) 및 중장기(5년~) 성장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비전인 "달성!3030(2030년 매출 3,000억 달성)"을 위해 단기적인 목표로는 신규사업인 방산 쪽으로 특화하여 유수의 방산업체와 함께 K-방산을 더욱 더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윈도우 컨트롤러 및 카메라 딥러닝 검사 장비 등의 개발 성공으로 향후 선제적으로 관련 업계의 기술을 리드하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해당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역(구미시/경북도 등)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희 구일엔지니어링이 향후 필요한 지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상장 준비 기업을 위한 법률·재무 컨설팅 지원, 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산업단지 기반 시설 개선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기업들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장 기반을 갖추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무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아이에스는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를 넘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장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도전적인 일자리를, 지역사회에는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미에서 일류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 연구진

최은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소장

오선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제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동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수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수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구미 현안분석 브리프」는 국가와 지역 산업·기술 정책, 지역혁신, 현안이슈 등 각종 동향과 이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결과를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본 발간물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발간물의 내용을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현안분석 Brief

발간호수 : 2025년 8월호

발간물명 : 구미 현안분석 Brief

주 소 : (3917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문 의 : 구미정책기획연구소(054-479-2263)

